

一 로 이 사람이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피하였으나 공의가 필연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  
 二 울이 그 진땀을 볼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한 것이 없더라 후 본든지 후 갑자기 없더져 추는 출로 저  
 三 회가 알았더니 오래 보아도 관계치 아니하며 돌려 생각하고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○ 섬에서 제일 높은  
 四 사람의 이름은 보블리오니 발이 있어 그곳에서 가까운지라 우리를 사흘이나 은혜로 대접하더니 보블리  
 五 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손을 그 위에 얹찰하여 낮게 한대 이  
 六 로부터 심 가운데 다른 병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얻으니 ○ 우리를 많이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 
 七 것을 배에 올리더라 ○ 선달 후에 거기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쓰스쌍  
 八 자라 수리구사에 대고 거기서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두루 행하여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나매 남  
 九 풍이 일어나는지라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형제를 만나니 우리를 청하여 이레를 저희와 같이 유하다  
 一〇 가 인하여 로마로 가니 거기 형제들이 듣고 압박오자와 삼관까지 와서 우리를 맞으니 바울이 저희  
 一一 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○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홀로 한 지키는  
 一二 군사와 같이 있게 하더라 ○ 마침 사흘을 지나매 바울이 유대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형  
 一三 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얻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 조상의 규모도 범치 아니하였는데 가두  
 一四 었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붙이니 로마 사람이 나를 심문하여 추밀 죄 없음을 보고 놓으려  
 一五 하되 유대인이 옳지 않다 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품함이요 우리 백성을 송사하려는 것  
 一六 이 아니로라 이리하므로 너희를 청하여 보고 의논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최사  
 一七 슬에 대신 바 되었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 일로 하여 편지도 받지 아니하였고

一 또 형제들이 여기 와서 네 옳지 아니한 것을 말하기도 아니하고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니 ○ 우리가 너의  
 二 의견이 어떠한가 들으려 함이요 이 교는 우리가 들으니 있는 데마다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 ○ 일자를 정  
 三 하고 저희가 그 우거한 곳에 많이 모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물게까지 강론하여 하나님나라를 증거하  
 四 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권하더라 ○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  
 五 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흠어지는지라 그 흠어질 때에 바울이 말한 마디로 일러 가  
 六 로되 옛적에 성신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여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실한지라 일렀으되  
 七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  
 八 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저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으니 눈에 보이고 귀  
 九 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아 회개하여 나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

一〇 하였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를 이방 사람에게로 가서 전할 줄로 알라 그 사람들은 또한 들이리라  
 一一 하더라 ○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세 주고 든 집에 유하며 제게로 오는 사람을 다 대접하고 하나님나  
 一二 라 도를 담대히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